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시험지 광고 판매

캘리포니아 남부의 란초 베너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는 한 교사가 자신의 시험지에 광고를 유치해 삭감된 지원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UPI가 보도했다.

톰 파버라는 47세의 이 교사는 학생들이 치르는 여러 시험의 시험지를 인쇄하는데 연간 500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지원예산이 316달러로 삭감되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파버 교사는 퀴즈에 실는 광고는 10달러, 각 섹터별 시험은 20달러, 학기말 시험은 30달러에 광고 판매를 시작해 350달러를 모았는데, 광고들은 주로 '열심히 하자, 힘을 내라' 라는 학부모들의 광고가 2/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름더런 '최고의 학기를 위해 노력' (brace)는 차이보 강 혹은 교정의 뜻도 있음 하자 라는 치과인사가 게재한 광고 등 지역상권 광고들이었다.

이번 시험지 광고에 대해 이 학교의 폴 로빈슨 교장은 "이번 시험은 나이키 혹은 맥도날드가 후원합니까라는 식의 광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태국] 인기 채널, 불투명한 경기전망에도 광고요금 인상 고려

태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TV 채널 3의 소유주인 BEC는 올해 늘어난 광고로 인해 수익률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의 90% 이상을 광고로 얻고 있는 채널 3의 BEC 재무담당 최고임원은 광고비 씬셈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어두운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광고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첫 6개월 동안 수익이 20% 이상 증가했다. 마지막 분기 역시 광고 매출이 두자리 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수익은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내년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광고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07년에도 전해 대비 37% 늘어난 22억5천만 바트의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채널 3은 연에오락 부문이 취약하고, 경기 가 어려워지면서 광고주들도 씬셈이를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3/3**

[WFA 세계광고주연맹] Value of Advertising

1. 소비자들을 이롭게 한다.

소비자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광고는 소비자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광고를 통해 기업들은 서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하고 경쟁사와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는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한다.

바우어 말하면 '경쟁'은 곧 기술로써 하여급 공급없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 좋고 싼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기가 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경쟁으로 인해 평면TV 가격은 급속히 떨어지면서도 화면 크기와 영상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라. 광고와 경쟁, 그리고 소비자 가치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예전에 미국의 몇몇 주에서 있었던 안경에 대한 광고금지법안이 폐기된 후 가격이 무려 30~40%나 하락했던 일이 있다.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
이유, 자동차보험, 컴퓨터, 여행 등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제껏 선택해야 할 것들이 이처럼 많으면 적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취향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능상품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개인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나간다. 커피로 예를 들자면, '1+1 이벤트' 광고를 통해 좀더 낮은 가격에 커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운 포장 시스템이 커피 원두의 신선함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각 개별 취향과 가치에 딱 맞는 선택, 이블테인 공평우려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언제나로 기업은 광고를 통해 그 어떤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광고 덕분에 소비자는 '그 중 나은 것'을 고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광고이다.

2. 경기를 활성화한다.

광고는 경제 성장을 이끈다
기업의 성공을 도모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에서 광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직접적으로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실제로 경제성장률과 광고는 밀접한 관계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 주요 시장에서 GDP 성장률과 광고 투자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광고비 비율이 높은 임종이 성장의 방아쇠인 경향이 활발하다.
- 광고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의 경제 활동은 빈약하다.
또한 광고업종 그 자체로도 경제 성장의 큰 축을 차지한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이었고, 6.4%의 성장률은 전체 미국 경제 성장률 2.2%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광고는 일자리를 만든다
경제 성장에 밀조하는 동시에 광고는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광고업종은 전체 1억2천만명인 일자리 중 1천만명인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광고와 관련된 업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광고업종이 전체 일자리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평균보다 무려 2~4배에 달한다.

3. 미디어의 생명줄

광고는 미디어를 먹여 살리는 생명줄
광고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원천이다. 광고가 없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세계 수많은 미디어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문광고가 없다면 신문은 구독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올려야 한다. 또 광고가 없다면 TV와 라디오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드라마,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들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수입의 약 94%가 그대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재투자된다. 인터넷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는 전세계적으로 기존 전통매체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 장벽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매체에 지금을 대고 있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고할 자유 없이 출판과 방송의 자유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핀토 발세머, 포르투갈 총리)

4. 스포츠와 문화의 든든한 후원자

FIFA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와 같은 스포츠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광고와 후원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 대략 2십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원 및 그것 관련된 수입으로 모두 충당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지원하는 마케팅에는 이처럼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전세계 구독자 및 시청자에게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예술분야에서도 광고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전시회 및 행사를 후원한다. 스폰서는 각 지역사회의 스포츠팀, 문화기관과 이벤트 및 전도유망한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현대미술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하나인 데미안 허스트도 역시 런던 덕번드 디벨로먼트 코퍼레이션의 후원을 통해 가능했던 학생시절 작품 전시를 통해 그의 첫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5. 좋은 세상을 위한 원동력

더 나은 세상을 위한 Social Marketing
전세계적으로 공익광고가 애즈에 대한 위임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 홍보, 가정폭력 근절,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등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이미 입증되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이미 주요 광고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정부는 꾸준히 광고를 애용하고 광고비 순위에서도 3위를 유지해왔다(2007년 영국 내 두 번째로 큰 광고주에 올라있다).
기업들 역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단차 브랜드나 아이티아를 파는 것을 넘어 기업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광고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프록터앤갠들의 아리엘 제품 영국 소비자들은 아리엘 로 클린 캠페인의 결과로 에너지 소비를 무려 41%나 줄였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30도에서 세탁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 결과 4인 가족 기준,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43킬로그램 줄어든다는데, 이는 24킬로미터를 운전할 때의 배출량과 같다.